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저희 주위에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하는 일에 저희 부족함 없도록 또 소홀함 없도록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또한 사용하여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져있는 어린 영혼들 저희들에게 나아오는 그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길 함께 하여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만 의지하는 그런 교사들로 주님 앞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나아온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님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깨달아 그리고 저희에게 나아오는 그 어린 영혼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귀하게 사용하여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룯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대답을 안 하면 저는 또 댄 거하는 줄 압니다 맞죠?

이거는 전국의 선생님들 다 보셔야 되니까

룯기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룯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 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 다시 떠난 이집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다 너희들은 며느리들에게 오르바와 룯에게 너희 신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룯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죠?

룯이 어머니에게 말하면서요 어머니를 쫓겠다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자기의 각오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룯에 대해서는 짧은 성경이지만요 이 룯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룯기 1장 1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

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요 흉년이 드니까 모압지방으로 가서 우거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 룯기가 기록되는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룯기를 꼭 읽어보면 이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룯기 1장 1절에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사실과 종교적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뭐로요? 때가 어느 때래요?

전국의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룯은 누구의 할머니, 누구의 조상이 되요?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 되요

그런데 룯은요 룯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민족 중에 태어났어요 그죠?

모압족속이잖아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예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조상에 족보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라고 말씀되어있어요

이거 지금 마이크가 조금 울리거든요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나 그리고 종교적인 교훈만을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픽션이 아니고 실제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처음부터 아예 못을 박고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사사시대 대략 350년의 기간으로 보고 있죠?

저번에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 사사 웃니엘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웃니엘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때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이 사사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룯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기는 다윗의 할머니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잖아요

그리고 이새 아버지 오벧, 그리고 오벧의 엄마 맞나요?

맞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볼 때 이 룯기의 배경은 대략 기드온 시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룯기가 기록이 된 룯기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땅이 흉년이 들었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농사가 다였어요

근데 이 농사는 어떤 지금처럼 댐을 건설하고 물을 다스리면서 농사짓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이 땅은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답니다 그죠?

이것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레위기 26장 찾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찌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 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건요 이때 이 룯기가 기록된 이 당시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 땅에 흉년이 든거예요.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배경 가운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두 아들과 자신의 처를 데리고 모압땅으로 건너왔어요

룻기 앞에 있는 성경이 뭐죠?

사사기, 사사기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한 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거예요 시작할 때 사사기 1장은요

사사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 여쭙보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사들의 그 시기를 사사기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점점 하나님 중심이었던 삶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고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 너무 좀 황당한 이야기다

그리고 어떻게 모압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흠집내기를 하려고 싫어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롯기의 소재가 만약 진실이 아니었다면 이건 비현실적, 롯기의 비현실성이 금방 폭로되었을거예요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왕이 누구죠? 다윗

그 다윗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 섞여있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이 이 안에 스며들어있다면 그것은 금방 꼬집어낼 수 밖에 없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점도 흠도 없어야 되요

찾을 수가 없는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실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다 사실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왕족들이 다윗왕, 다윗왕에 대한 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요 여자의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책의 이름이 되어있는 것이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책의 제목이 된 성경이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롯기하고 에스더

근데 이 두 성경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은요 먼저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완전히 초월적인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에스더서에서는 전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룯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꼭 설명하고 계시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룯기와 에스더는 비슷한 차이점, 이 룯은요 첫째 이방인, 이방여인이었어요

젊은 이방의 여인으로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다윗의 가계에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인과 결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반대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땅에서 살지 않고 이방땅 이방민족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방인의 아주 위대한 왕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시작이 달랐지만 결국 자리가 옮겨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같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돼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맞습니다

이 결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들이 바로 그런 이방인, 저주받은 민족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걸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는 제가 저희 백성을 병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해주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1장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대부분이 올라가있지않죠?

3절에 다말이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라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야의 아내라고 되어있습니다 밧새바죠?

이렇게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있는데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도 죄송하지만 여인은, 여자들은 치지않았습니다. 그죠?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이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다말을 보면요 다말은요 유다에게서 다말이 아이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유다하고 다말은 어떤 사이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참 이게 입에도 올리기 어려워요

며느리를 통해서 그 후손이 이어져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요 이 다말이 대를 잇고자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되는 그래서 이런 귀한 자리에까지 이름이 기록이 되는 그죠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요 라합, 이 라합은 구원받고자 하는 여리고성에서 멸망받을 수 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서 구원받고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윗의 혈통에 계보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한거고 우리야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자, 이걸요 깨끗한 어떤 그런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만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알 수 있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죄인의 역사를 기록을 해놓으신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이 여인들도 지금 그대로 살았으면 이런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기에게 처해진 그런 환경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룯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바와 룯이 동시에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어머니, 자기 고향, 자기 조상들이 있는 자기 조상들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간거예요

그런데 룯은요?

자기 조상들이 섬기는 그 신을 떠나서 이제 어머니가 섬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간거예요

이걸요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어머니 남편도 없어요

그 시어머니만 쫓아서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환경과 그 배경들 자기가 섬겼던 그 신들 다 버리고 완전히 생소한 생각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그런데 아까 분명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게 룯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쫓아간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고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끌고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많은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방법과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르바는 봤어요

오르바는 눈감고 있었고 룯은 눈뜨고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하시는걸 보고 안 보고 했을까요?

똑같이 본거예요

하지만 선택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과 함께 멸망한거예요

이 나오미와 룯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돌아갔을 때 그 땅에는 이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살았던 그 땅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거고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땅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의 기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 다들 아시죠?

레위기 25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찌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히브리어로 고엘,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데요

근데 이 고엘 제도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히브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생명과 재산을 그리고 그 가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는 그 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문이 유지가 되고 재산과 그런 그들이 계속 대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가장 기본적인게 뭐부터 시작이 되요?

땅부터 시작이 되요

이 땅은 누구꺼랍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합의 부인 이름이 뭐죠?

이 원데 예, 이세벨 이세벨이 이때 이세벨 때에 땅 다 팔게 해버렸잖아요

땅을 다 개인소유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나중에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온통 이건 하나님 다스리심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결국 나오미와 룯이 돌아왔을 때 그 엘리멜렉의 땅 그 땅이 그에게 해당되어진 그 땅이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쪽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가문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 가운데 계속 가르치고 자랄 수 있었던거예요

룯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룯기 1장에 또 이스라엘이 룯기의 배경이 되는 제도 형사취수제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나오미가 했는데요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

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찌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미가 하고 있었

며느리들아 너희 남편될 사람들이 내 뱃속에 있느냐 내 태중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형이 결혼을 했다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그럼 누가 남편이 되요?

동생이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에 제도가 있었습니
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이때 룯은 자기의 결단을 확고한 마음을 어머니 앞에 말씀합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
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
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16절 나머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룯의 마음은 결국은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 쫓아가는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요

2장 볼까요?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뉘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같찌어다 하매 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제 먹고 살아야되잖아요 기업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이삭줍기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줍는데요

그런데 3절에 보면요

[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이르렀어요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제도를 배웠어요

지금 뭔가 만들어져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대신 기업을 물어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신 그 가문을 이어줘

야 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요

배경이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그 배경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
세요

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이 근실하고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이 여인 룻, 그리고 이
룻기를 쪽 읽어보면 이 룻이 얼마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여인인지 분명 말씀
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이 사람의 눈에는 우연하
게 보이기 시작하지만 우연하게 그 일이 시작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
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아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
님의 초월 통치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제도
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급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험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심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룻도 그 중에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또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여인들을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시대 우리를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견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어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그 이스라엘의 제도대로 이스라엘 백성가운데 있는 제도대로 그들에게 은혜가 돌아가는 그 은혜가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이 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안 받아주시면요 이방인들을 구원 안 해주셨다면 우리는 큰일 날 뻔 했어요

이방인 결국 로마서 3장에는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까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표정이요 확인해봐야겠다는 표정이라

로마서 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는거예요

자, 이걸요 이제 우리가 이 룯기를 통해서 어떤 제도들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이중에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더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해할 수 있는 배경들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어요